

# 『구운몽』에 나타난 여성 우정의 양상과 그 의미

엄진주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목차

- 1 서론
- 2 중세 여성 우정의 역사적 맥락
- 3 『구운몽』에 형상화된 여성의 우정
  - 3.1 우정을 위한 결혼
  - 3.2 결혼을 통한 공동체 형성
- 4 여성 공동체의 헤테로토피아적 가능성
- 5 결론

이 글은 김만중의 『구운몽』에 형상화된 여성 우정의 양상과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운몽』에는 다수의 여성 인물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소유가 여러 뛰어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기존의 서사는, 여성들의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경우 새롭게 해석될 가능성이 열린다. 『구운몽』의 여성 우정은 친구와의 일대일 우정을 위해 같은 남자와의 결혼을 선택하는 양상과, 결혼을 통해 그러한 우정을 일대다의 관계로 확장시켜 여성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양상으로 나뉜다. 중세 시대에 여승이나 수녀 등의 여성 공동체가 가부장적인 사회의 대안 공간 혹은 대항 공간으로 기능했음을 고려한다면, 『구운몽』 속 일부다처제는 남성 중심의 질서를 넘어서 여성들이 우정을 이어나가는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의미까지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에 남성의 욕망이 깃들어 있음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성들 사이의 우정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읽어 나갈 경우 해방적인 의미가 충분히 발견될 것이다.

국문핵심어: 구운몽, 여성 우정, 자매애, 여성 공동체, 헤테로토피아

## 1 서론

오늘날에는 여성 간의 친밀한 관계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사실 ‘우정’은 역사적으로 “남근중심주의적(phallogocentric) 혹은 남근로고스중심주의적(phallogocentric) 개념”<sup>1</sup>이었다. 서기 1600년 무렵까지 서구 역사에서 우정에 대한 거의 모든 기록은 오직 남자들만의 이야기였다.<sup>2</sup> 동양에서도 남성들의

---

1 “Politics and Friendship: A Discussion with Jacques Derrida”(discourse at the Centre for Modern French Thought, University of Sussex, UK, December 1, 1997). [www.livingphilosophy.org/Derrida-politics-friendship.htm](http://www.livingphilosophy.org/Derrida-politics-friendship.htm).

2 메릴린 엘름·테리사 도너번 브라운, 정지인 역, 『여성의 우정에 관하여: 자매애에서 동성애까지 그 친밀한 관계의 역사』, 책과함께, 2016, 15쪽.

우정과 의리에 관한 일화는 관포지교(管鮑之交)나 도원결의(桃園結義)처럼 많은 전설을 남긴 반면, 여성들의 모임은 수다, 이간질, 시기, 질투 등으로 폄하되곤 했다.<sup>3</sup> 여자에게는 진정한 우정을 나눌 능력이 없다고 치부되어 온 것이다.

특히 딸, 아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받았던 중세 여성들의 경우, 그 인간관계가 주로 가족과 친족의 범위 안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구운몽』 속 여성 인물은 “남자는 사해를 두루 돌아다니며 어진 친구를 사귀어 학문과 덕행을 높이고 스스로를 바로잡고 경계할 길이 있는데, 여자는 오직 집안의 종들 외에는 접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느 곳에서 잘못을 바로잡으며 누구에게 의심스런 것을 물을 수 있겠는가”<sup>4</sup>라고 한탄한다. 따라서 이 글은 여성을 철저히 남성과의 관계로만 규정짓는 가부장제 관념에서 탈피하여, 『구운몽』에 형상화된 여성 우정의 양상과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서포(西浦) 김만중의 『구운몽』에는 중심적인 여성 인물이 다수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는데, 그 원인은 여성들이 모두 양소유의 처나 첩이 되는 것으로 서사가 마무리되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구운몽』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의 조화로운 관계에 가장 먼저 주목하여 ‘동성애적 화해’라고 명명한 김병국의 논의는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의 의미는 일부다처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미덕이라는 차원에 곧바로 포섭되고 만다.<sup>5</sup>

이와 관련하여 김문희는 『구운몽』 속 여성 인물의 자매애적 친밀감을 가부장제의 논리로 이해해 온 기존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여성들 간의 정신적 교유가 부부관계의 상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sup>6</sup> 또한 김혜정은 『구운몽』 등

3 홍나라·박성지·정경민, 『악녀의 재구성: 한국 고전서사 속 여성 욕망 읽기』, 들녘, 2017, 146-147쪽.

4 김만중, 정병설 역, 『구운몽』, 문학동네, 2013, 164쪽.

5 “『구운몽』에서 보여주는 여주인공들의 동성애적 화해가 우리 동양의 문화 전통에 있어서는 대단히 보편적인 양상이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 오늘날에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내가 술선하여 젊은 첩을 구하여 남편에게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처첩간에 기이한 화해를 이룩하고 있는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다.”(김병국,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323-325쪽.)

6 김문희, 「〈구운몽〉의 중층적 담론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0집, 한국고전여성

의 서사문학에서 일부다처제가 여성 친구들을 한 가정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우정을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한다는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sup>7</sup> 반면 정길수는 소설에 형상화된 여성 간의 지음(知音) 관계가 오히려 양소유의 여성 편력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 『구운몽』의 여성들은 ‘여성의 목소리’가 아닌 여성을 가장한 ‘남성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sup>8</sup>

이 글은 정길수의 견해 역시 타당성을 지닌다고 판단하면서도, 여성 우정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의미화한 김문희, 김혜정과 유사한 관점에 선다. 그런데 김문희가 『구운몽』의 주도적 플롯과 부차적 플롯을 구분하면서 여성들의 친밀감이 지니는 대항적인 성격을 후자에 한정하였다면,<sup>9</sup> 이 글은 여성 간의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주도적 플롯 자체를 전복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운몽』에 형상화된 여성 우정의 의미를 대안 혹은 대항 공간으로서 여성 공동체로까지 확장하여 논했다는 점에서 김혜정의 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사실 고전소설에서 여성 간의 우정은 『숙녀지기』에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평가되지만,<sup>10</sup> 두 여성 사이의 일대일 관계만 형상화한 『숙녀지기』나 『방학립전』 등과 달리 『구운몽』에는 독자적이고 개성 있는 성격을 지닌 여성 인물들이 여덟 명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그 우정의 양상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기에 용이하다. 이처럼 『구운몽』을 양소유 중심의 영웅 서사 혹은 여성 편력 서사로 읽는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 인물들의 관계에 집중한다면 소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

문학회, 2005, 247, 259쪽.

7 김혜정, 「서사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우정 실현 양상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제22집, 동양고전학회, 2005, 78, 98쪽.

8 정길수, 『구운몽 다시 읽기』, 돌베개, 2010, 77쪽.

9 김문희는 『구운몽』을 표면적으로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대항 담론을 내포하고 있는 중층적인 텍스트로 의미화하면서, 대항 담론의 구체적인 양상으로 여성 인물의 자매애적 친밀감 외에 양가적 인물의 형상화, 남성적 권위의 희화화, 남성 인물의 애정 행각에 대한 이중적 태도 등을 제시한다(김문희, 앞의 글, 233-235쪽).

10 김혜정, 앞의 글, 65쪽.

## 2 중세 여성 우정의 역사적 맥락

중세 여성들 간의 우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 시대의 공식 문자였던 한자를 배운 여성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sup>11</sup> 여성의 한문 문필 활동은 더더욱 금기시되었기 때문이다.<sup>12</sup> 물론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는 조선 여성들이 한글을 통해 문자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특히 편지에서 그러한 양상이 잘 나타나지만, 여성 우정의 관점에서 편지글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주로 구술을 통해 어문생활을 영위해 나갔다는 점에서 여성 간의 친밀한 관계 역시 구술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리라 추측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 글은 가부장제의 외부에 존재했던 여승(女僧)에 주목함으로써 중세 여성들의 우정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sup>13</sup> 조선의 통치이념인 유교, 특히 성리학은 가부장적 윤리체계와 척불 정책의 사상적 기반으로서, 여성 불자들에게 이중의 억압으로 작용하였다. 그중에서도 여승 혹은 비구니는 불교, 출가, 여성이라는 세 가지 열악한 요소를 모두 갖춘 비주류 집단이었다.<sup>14</sup> 그렇지 않아도 억불정책을 펼치는 유교 사회에서 승려는 배척의 대상이었고 혼인하지 않은 여성은 가부장제를 어지럽히는 존재였는데, 이러한 정체성이 중첩된 여승은 더욱더 나라의 존속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래서 승려가 된 여성에 대해 음탕하다거나 추악하다는 식의 부정적인 담론이 형성

---

11 이지하, 「조선후기 여성의 어문생활과 고전소설」, 『고소설연구』 제2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306-307쪽.

12 백두현, 「조선 시대 여성의 문자 생활 연구: 조선왕조실록 및 한글 필사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제97호, 진단학회, 2004, 143-144쪽.

13 물론 불교에 기반을 둔 여승의 경우를 통해 『구운몽』 속 인물과 같은 사족 여성들의 우정을 유추해 내는 데에는 얼마간 논리적 비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에서는 여성 간의 우정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여성 공동체가 가부장 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의미화될 수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구운몽』에 드러난 여성 우정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14 이향순, 『비구니와 한국 문학』, 예문서원, 2008, 22쪽.

되었다.<sup>15</sup>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조선 여성들에게 여승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유교문화에 균열을 내는 여성 저항의 희미한 징후”였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여승 중에는 독신인 사람도, 과부가 된 사람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유교적인 가족 질서 내부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조선 시대 시집살이요에는 고된 시집살이 끝에 중이 되어 떠난다는 수사가 종종 등장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여성들이 시집살이의 대안으로 선택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남성 중심적 가족 질서 바깥에 위치한 여승 공동체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sup>16</sup> 특히 여승들이 “친구를 모으고 때를 지어”<sup>17</sup> 다녔다는 서술에서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여성 우정의 모습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가부장제라는 주류 사회의 외부에서 여성들끼리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대안적인 여성 공동체는 일종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였다고 할 수 있다. 푸코(M. Foucault)에 따르면 헤테로토피아란 ‘다른 공간’인 동시에 ‘타자의 공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는 개념으로, 모든 장소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권력의 공간에 저항하는 주변적·대안적 공간을 뜻한다.<sup>18</sup> 유토피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공간이라면, 헤테로토피아는 실질적인 위치를 가지는 “자리매겨진 유토피아”, “모든 장소 바깥의 실제 장소들”이다.<sup>19</sup>

여승과 유사한 경우로 서양의 수녀를 들 수 있는데, 중세의 수녀원에 관한 페미니즘 연구 중에는 그곳이 헤테로토피아로서 기능했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

---

15 정지영, 「조선시대 혼인장려책과 독신여성: 유교적 가부장제와 주변적 여성의 흔적」, 『한국여성학』 제20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04, 28-30쪽.

16 위의 글, 27, 31쪽.

17 “처녀와 과부가 머리를 깎는 일이 서로 계속되어 끊이지 않으며, 혹은 선(善)을 권장한다고 하고, 혹은 산에서 놀이한다는 핑계로 친구를 모으고 때를 지어 중들과 섞여 있으므로, 음란하고 추악한 행위가 그 집안의 풍속을 어지럽히게 됩니다.”(『성종실록』 98, 9년 11월 30일(정해); 정지영, 앞의 글, 26쪽에서 재인용.)

18 정병언, 「저항적 여성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 마사 노먼의 *Getting Out*」, 『현대영미드라마』 제20권 3호,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 2007, 133-134쪽.

19 미셸 푸코,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13-14, 47쪽.

다.<sup>20</sup> 심지어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발전시켜서 수녀원을 “완전히 혹은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고/되거나 여성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체”인 ‘페미니토피아(feminotopia)’로 규정하는 주장도 존재한다.<sup>21</sup> 가부장제의 용인 속에서 형성되었던 여성들의 공간이 이러한 의미를 지녔다면, ‘베긴회(Beguines)’<sup>22</sup> 수녀나 여승의 무리처럼 남성 사회의 승인 없이 존재했던 여성 공동체는 보다 큰 대항적인 효과를 내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들이 가부장 권력에 의해 규제 및 처벌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 3 『구운몽』에 형상화된 여성의 우정

중세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도 여성 간의 유대가 가능했고, 또 그것이 저항으로 인식된 경우도 있었음을 여승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여성을 남성과의 관계 하에 귀속시키려는 시도는 언제나 균열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하여, 이 장에서는 『구운몽』에 형상화된 여성 간의 우정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으로는 『구운몽』의 여러 이본 중에서 여성 인물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잘 나타난다고 판단되는 을사본<sup>23</sup>의 번

20 Tonya Moutray McArthur, “Through the Grate; Or, English Convents and the Transmission and Preservation of Female Catholic Recusant History”, ed., Jeana DelRosso, Leigh Eicke and Ana Kothe, *The Catholic Church and Unruly Women Writers: Critical Essays*, New York &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07, pp.105-122.

21 Barbara Woshinsky, *Imagining Women’s Conventual Spaces in France, 1600-1800*, Farnham & Burlington, VT: Ashgate Publishing, 2010, p.3. 워신스키에 따르면 ‘feminotopia’는 현실성을 가진 공간이라는 점에서 여성 유토피아인 ‘feminutopia’와는 구별된다.

22 베긴회는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용인된 아내와 수녀라는 역할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된 결과로, 결혼하지 않았거나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이 종교적 목적을 위해 함께 생활한 공동체이다. 공인된 종교적 교단에 소속되지 않았던 이들은 ‘베긴들이라 불리는 저속한 여인들’이라고 폄하되었고, 많은 베긴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거나 화형에 처해졌다(김재현, 「“Mulieres vulgariter dictae beguinae”: 메히트힐트(Mechthild of Magdeburg)를 중심으로 한 베긴회(Beguines) 연구」, 『중세르네상스영문학』 제12권 1호, 한국중세근세영문학회, 2004, 44-45쪽).

23 원본이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구운몽』의 선본은 오랫동안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

역서를 선정하였다. 또 8명의 여성 인물 중 심요연과 백능파를 제외한 6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양소유가 티베트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이 두 명은 가장 늦게 등장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비중이 작고, 여성 간의 친밀한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여성들과 달리 각각 도술을 부리는 자객과 용왕의 딸이라는 비현실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 3.1 우정을 위한 결혼

『구운몽』에는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 양상이 세 쌍의 여성 친구들에게서 드러난다. 양소유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것은 남성 욕망 및 일부다처제의 합리화일 뿐이겠지만, 여성 인물들에 초점을 둘 경우 오히려 남성 중심적 제도를 전복적인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세 여성들은 혼인을 하면 출가외인이라 하여 친구는 물론 가족조차도 만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우정과 결혼의 이와 같은 배타적인 관계는 17세기 잉글랜드의 한 여성에 의해 “친구의 결혼식은 우정의 장례식”<sup>24</sup>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운몽』의 여성들은 어떻게 우정을 나누고 실현해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먼저 “『구운몽』 여성의 동성애적 경향의 압권”<sup>25</sup>이라고 평가되는 정경패와

---

구원에 소장된 한글 필사본이나 개인 소장의 한문 필사본으로 여겨져 왔지만, 1725년 전라도 나주에서 간행된 을사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일 뿐만 아니라 내용과 표현 면에서도 문학적인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정병설, 「머리말」, 김만중, 앞의 책, 6쪽). 실제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국문 필사본을 현대역한 책과 비교해보면, “두 소저가 총총(怱怱)히 이별함을 한하여 권련(眷戀)하는 듯이 안색에 나타나더라.”(김만중, 김병국 역, 『(현대역) 구운몽』,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150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을사본 번역서에는 “경패와 이소저는 갑작스런 이별에 마음이 애뜻하여 여진 형이 사랑하는 아우를 보내는 것 같고, 남자가 사랑하는 예쁜 여인을 떠나보내는 것과 같았다.”(김만중, 정병설 역, 앞의 책, 169쪽)라고 서술되어 있다.

24 Antonia Fraser, *The Weaker Vessel*, New York: Alfred A. Knopf, 1984, p.338(메릴린 엘롭·테리사 도너번 브라운, 앞의 책, 111쪽에서 재인용).

25 김병국, 앞의 책, 322쪽. 반면 김혜정은 “여덟 여주인공들간의 조화로운 관계는 ‘동성애’보다는 심리적 동정과 배려를 통한 여성지기적 ‘우정’에 가깝다”(김혜정, 앞의 글, 66-67쪽)



가춘운의 관계부터 살펴보겠다. 정경패는 재상가의 무남독녀이고, 가춘운은 정사도 집안의 일을 도왔던 아전의 딸이다. 가춘운은 열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사도 부부에 의해 거둬진 후로 정경패와 함께 놀면서 자랐다. 이때부터 “경패는 춘운을 형제로 보고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명목상의 “관계로는 주인과 종이지만 실제로는 가까운 친구였”<sup>26</sup>던 것이다. 그런데 정경패와 양소유의 혼인이 결정되자, 슬픔에 빠진 가춘운은 비단신에 다음과 같은 시를 수놓는다.

어여빠라 운 좋게 고운 님과 친해져	憐渠最得玉人親
걸음걸음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네	步步相隨不暫捨
하지만 촛불 끄고 장막 치고 허리띠 풀 때	燭滅羅帷解帶時
그땐 너를 침대 아래 던져두겠지	使爾拋却象床下 (78)

자신을 ‘고운 님’의 비단신에 빗대어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경패와 떨어지게 된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 시를 발견한 정경패는 “늘 떨어지지 않다가 내가 남편을 따라가면 버려질 것을 생각했구나. 춘운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78)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향한 가춘운의 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식을 치르기도 전에 가춘운을 양소유의 첩으로 들이도록 부모를 설득한다. 이들에게 결혼은 우정을 위협하면서도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양가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다.

게다가 가춘운에게는 항상 양소유보다 정경패가 우선이다. 가춘운은 『구운몽』의 여성 중에서 유일하게 남성의 존재 없이 여성 친구를 통해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다.<sup>27</sup> 이러한 점은 다음의 세 가지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여자는 평생 한 남자를 섬겨 몸을 바쳐야 한다는 것 알지? 넌

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여성 친구들에게서 종종 드러나는 동성애와 유사한 모습에 대해, 그것이 동성애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보다는 우정을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 동성애적인 양상도 우정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포괄되는 것으로 보도록 한다.

26 김만중, 정병설 역, 앞의 책, 71쪽. 이후로는 괄호 안에 쪽수만 밝힌다.

27 정길수, 앞의 책, 76쪽.

어떤 사람에게 몸을 맡기고자 하니?”

“저는 아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도, 그 은혜를 조금도 갚지 못했어  
요. 평생 아씨의 세숫물 심부름이나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80)

㉠ “(…) 남자를 섬기고자 하면서 먼저 그를 속이는 것이 여자의 도리에  
맞겠느냐?”

춘운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군대에서는 장군의 명령만 듣지 임금의 명령이라 해도 듣지 않는  
다고 하지요. 천첩은 단지 장군의 명령을 들었을 뿐입니다.” (100)

㉡ “(…) 아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노부모 슬하에서 있다가 부  
모가 모두 돌아가시면 몸을 깨끗이 하고 머리를 깎아 불교에 몸을 맡  
기고자 하십니다. 부처님 앞에서 세세생생에 다시는 여자로 태어나  
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이 길을 따를 것이니 (…)”  
(134)

㉠에서 가춘운은 남편을 섬기기보다 한평생 경패와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다. 이미 춘운의 시를 통해 자신을 향한 마음을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정경패는  
모르는 척 행동하며 우정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같은 남자와 결혼함으로  
써 우정을 이어가기로 약속하자마자 이들은 함께 남편이 될 사람을 속일 계획을  
짜다. 일전에 양소유가 여자로 변장하여 정경패를 속였던 것을 설욕하기 위함이다.  
이에 가춘운이 선녀와 귀신 행세를 함으로써 양소유를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양소유는 장면 ㉠에서 춘운을 꾸짖는다. 그런데 춘  
운은 군대에 비유하여 자신에게는 남편보다 정경패가 우선이라고 단호하게 대답  
한다. 이러한 뜻은 ㉡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정경패의 혼인이 성사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가춘운은 양소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난다. 특히 혼  
인이 무산되자 정경패와 가춘운이 함께 여승이 되고자 하는 점에서 가부장적 사  
회의 대안으로서 여승 공동체의 기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둘 사이의 친밀감은 ‘춘운’이라는 이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가춘운의 본

명은 초운이었는데, “경패가 춘운의 사랑스러운 자태를 보고, 한유의 시 ‘그대의 시는 여러 모습이니, 뭉게뭉게 핀 봄하늘 구름’이라는 구절에서 ‘봄하늘 구름’을 따서”(71) 춘운이라고 지어주었다. 이와 같은 양상을 17세기 서구의 여성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캐서린 필립스(K. Philips)는 자신의 시에서 앤 오언(A. Owen)이라는 단짝 친구에게 루카시아(Lucasia)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동성 친구에게 허용된 한도에서 최대한 성애적 사랑에 가까운 감정을 표현했다.<sup>28</sup> “나는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너라는 것”<sup>29</sup>이라는 구절은 가춘운이 “제가 아씨를 따르는 것은 그림자가 몸을 따르는 것과 같”(134)다고 빗댄 표현과 유사하다. 즉 이들의 끈끈한 관계는 ‘사랑이 가득한 우정’<sup>30</sup>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 남자와의 결혼이 우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은 계섬월과 적경홍의 관계를 통하여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형제처럼”(55) 가까운 이들은 일찍부터 “두 사람 중에 누구라도 마음을 줄 수 있는 군자를 얻으면, 서로 천거하고 이끌어서 함께 한 남자를 섬”(56)기라고 맹세하였다. 그래서 계섬월은 기생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문학적 감식안을 활용하여 남편감을 찾는다.<sup>31</sup> 양소유가 지은 시를 보고 높은 자리에 오를 비범한 사람임을 미리 알아본 섬월은, 그를 따라가 자신의 집을 알려주고 즐거운 밤을 보내자마자 곧바로 자신을 첩으로 삼으라고 요구한다. 양소유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은 진채봉 등 다른 여성 인물들에게서도 나타나지만, 계섬월은 수많은 남자와의 비교 끝에 양소유가 으뜸이라고 평가하고 그를 자신의 남편으로 직접 선택한다.<sup>32</sup> 적경홍은 애초에 “천

28 메릴린 엘롬·테리사 도너번 브라운, 앞의 책, 109-110쪽.

29 Katherine Phillips, “To My Excellent Lucasia, On Our Friendship”, ed. Emma Donoghue, *Poems Between Women: Four Centuries of Love, Romantic Friendship, and Desi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p.3(메릴린 엘롬·테리사 도너번 브라운, 앞의 책, 110쪽에서 재인용).

30 메릴린 엘롬·테리사 도너번 브라운, 앞의 책, 66, 73쪽.

31 “저 낭자는 성을 계요, 이름은 섬월인데, 인물과 가무가 낙양에서 독보적일 뿐만 아니라, 고금의 시문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시를 보는 안목은 기묘하고 신령스러워 귀신과 같습니다. 낙양 선비들이 섬월에게 시를 바치면 섬월이 한눈에 보고 과거에 붙을지 떨어질지 판정하는데, 한 치의 어긋남도 없습니다.”(49)

32 “지난 사오 년간 천 사람, 만 사람을 보았습시다만, 낭군 같은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

하의 뛰어난 남자를 가려, 규중의 어진 짝으로 삼”(55)기 위한 목적하에 스스로 기생이 되기까지 하였다.

이들이 훌륭한 남자를 찾으려고 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신세를 낮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sup>33</sup>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소학』에 “한 지아비가 한 아내를 가짐은 상사람만의 직분(一夫一妻는 庶人之職也)”<sup>34</sup>이라고 강조되어 있듯이, 조선 시대에는 지위가 높은 남성이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다. 그러므로 남편이 대단한 사람일수록 많은 아내를 맞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친구도 함께 그의 아내가 되어 우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강제로 산동 제후의 후궁이 된 경홍에게 기다리던 짝을 찾았다고 알려줄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친구와 한 가족을 이루어 우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지위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다른 뛰어난 여성들을 천거하는 계섬월의 행동 역시 설명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양소유에게 적경홍을 소개하여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데 계섬월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은 첩의 위치에 만족한다고 하면서 “고귀한 집안의 어진 부인”(54)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먼저 정경패와 같은 명문가 규수를 아내로 맞이할 경우 양소유의 지위가 더 높아져서 적경홍과의 우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남자와의 관계 못지않게 혹은 남자와의 관계보다 친구와의 우정을 중시하는 계섬월과 적경홍은 의무가 많은 처보다 자유로운 첩으로서의 삶을 선호했으리라 추측된다.

이러한 모습은 계섬월이 적경홍으로 하여금 자신인 첩을 하여 양소유와 밤을 보내도록 한 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적경홍은 연왕의 잔치에 온 양

---

오늘날 천하의 인재 중에 낭군보다 나은 사람은 없으니, 이번 과거의 장원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승산의 인수와 대장군의 절월이 오래지 않아 낭군 손에 들어올 것입니다.”(53-54)

33 “아버지께서 불행히 타향에서 병으로 돌아가시자 집안은 영락하고 말았습니다. (…) 그래서 계모가 저를 기생집에 팔았고, 그 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저는 욕되고 원통한 것을 참고 몸을 굽혀 남을 섬기면서, 오직 하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좋은 남자를 만나 다시 밝은 세상을 보게 해주시기만 빌었습니다.”(53)

34 김병국, 앞의 책, 324쪽.

소유를 보고 궁에서 탈출하여 그를 쫓아갔고, 거기에서 계섬월과 우연히 재회하게 된다.

섬월과 더불어 옛일을 얘기하고 마음속에 간직한 말을 하며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들으며 즐겁게 놀았다. 밤이 깊어지자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소유가 날이 밝을 무렵 깨보니 섬월이 거울 앞에 앉아 분과 연지로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윽이 눈길을 주다가 홀연 놀라 다시 보았다.

(…)

소유가 이리저리 살펴보니 섬월이 아니었다.

“미인은 도대체 누구요?”

“첩은 파주 사람으로 성명은 적경홍입니다. 어려서부터 섬월과 형제의 의를 맺었지요. 어젯밤 섬월이 제게 ‘내가 병이 있어 상공을 모시지 못하게 되었으니 네가 나를 대신해 상공의 꾸지람을 면하게 해줘’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첩이 감히 상공을 모셨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섬월이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다.

“상공이 또 새사람을 얻었으니 첩이 감히 축하드립니다. 천첩이 일찍이 하복의 적경홍을 상공께 천거했는데 제 말이 과연 어떻습니까?”

(112-114)

자초지종을 미처 다 설명하기도 전에 들어와서 축하의 말을 건네는 계섬월의 모습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도 유쾌한 모습이다. 이는 적경홍이 자신과 함께 양소유의 첩이 될 수 있도록 잠자리부터 가지게 하여 일찌감치 못박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경패와 가춘운에게 결혼이 친구와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었다가 우정을 이어나가게끔 하는 수단으로 재의미화되었다면, 계섬월과 적경홍에게 결혼은 처음부터 여성 친구와의 우정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난양공주 이소화와 진채봉에게서도 친밀한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진채봉은 양소유와 백년가약을 맺을 것을 일찍이 약속하였으나 급작스러운 난리를 만나 헤어지고,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후 궁녀가 된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도리어 난양공주와 우정을 쌓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문자를 조금 안다는 말에 임금은 채봉을 여중서로 삼아 궁중의 문서 일을 맡기고, 태후 궁중에서 난양공주를 모시고 책을 읽고 글자를 익히게 했다. 공주는 채봉의 아름다움과 재주를 사랑하여 친척처럼 여기고, 곁에 두고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125)

이소화와 진채봉의 관계는 두 여성 간에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정경패와 가춘운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경패와 가춘운의 경우 양소유와의 결혼이 처음에는 우정과 대립하는 것으로 여겨진 데 반해, 이소화와 진채봉에게는 우정과 결혼이 별다른 갈등 없이 공존하게 된다. 둘 사이의 우정을 잘 알고 있는 임금과 태후가 난양공주와 양소유의 혼인이 결정되자 진채봉도 함께 그의 첩이 될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소화는 “진씨와는 정이 깊어서 서로 떠나고 싶지 않”아 일찍이 함께 시집을 가기로 약속했으며, “임금의 말씀이 없었다 해도 그러려고 했”(181)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는 계섬월과 적경홍의 관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계섬월과 적경홍의 경우 기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같은 남자와의 결혼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세 쌍의 여성 친구들은 우정을 지속하기 위해 한 남자와의 결혼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구운몽』의 일부다처제가 축첩의 도구에 그치기보다는 여성 친구들의 한집살이를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는 해석은 야담 「낙하유생」을 통해서 더욱 근거를 얻는다. 가난한 선비가 아내의 두 친구를 첩으로 얻어 부유해지고 정쟁의 화까지 모면하게 된다는 「낙하유생」의 서사는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적이다. 그런데 세 명의 여성 친구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에 유생의 의지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전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점에서 『구운몽』은 일부다처제를 이용하여 여성 친구들 간의 우정을 완성시킴으로써 시대적 한계를 수용하는 동시에 넘어서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sup>35</sup>

35 김혜정, 앞의 글, 62, 83, 96쪽.

### 3.2 결혼을 통한 공동체 형성

『구운몽』에는 결혼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여성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정을 확장해가는 양상도 나타난다. 이때의 우정은 ‘우정을 위한 결혼’의 양상과 달리 일대일 관계에 그치지 않는다. 양소유를 경유하여 다수의 뛰어난 여성을 만나고, 그들과 의자매가 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는 일부다처제를 활용하여 가부장적인 질서 내부에 여성 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난양공주 이소화를 중심으로 서사를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장 두드러지는 양상은 이소화가 만나본 적도 없는 정경패에게 같은 여성으로서 연민과 연대의식을 느끼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양소유가 난양공주와 혼인하라는 임금의 명을 정경패와의 혼약 때문에 거절하자, 태후는 “소유가 멀리 나갔을 때 정씨 집에 명령을 내려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 이소화는 “마마의 가르침은 사리에 크게 어긋납니다. 정소저의 혼인 여부는 그 집안 일이니 어찌 조정에서 간여할 수 있겠습니까?”(157)라고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정경패가 함께 양소유의 부인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기까지 한다.

공주가 여염집 딸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없다는 태후의 강력한 반발에 이소화는 옛날 임금들이 어진 선비를 존경하였고, 그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선비의 덕을 사랑하여 그와 벗이 되기도 했다는 점을 언급한다. 정경패를 만나기도 전부터 자신의 남편과 결혼할 수도 있는 여성과의 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계섬월이 자신의 친구인 적경홍 외에 다른 뛰어난 여성들까지 양소유의 아내로 천거했던 행동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운몽』의 여성 인물에게 결혼은 단지 남성과의 이성애적 관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과의 우정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의미도 가진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 이소화는 태후를 설득하기 위해 “제가 정소저의 용모와 재덕을 직접 보아 소문이 맞다면 응당 몸을 굽혀 함께 한 남편을 섬기겠지만, 소문과 다르면 그를 첩으로 만들든 종으로 만들든 마마의 뜻에 따르겠”(157-158)다는 꾀를 낸다. 그래서 이들은 정경패와 만날 기회를 살피다가 그녀가 쓴 발원문을 읽게 되는데,

정경패의 안타까운 사연에 난양공주는 슬피하였고 태후 역시 차마 “말을 잊지 못했다”.<sup>36</sup> 물론 “한 명의 결혼이 두 사람의 신세를 그르쳤으니 어찌 음덕에 큰 해가 되지 않으리오”(160)라는 공주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여성으로서 그 심정을 헤아리는 연민의 감정도 작용했으리라 판단된다.

이후 난양공주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정경패를 만나는데, 이들의 만남은 여종들에 의해 매개된다. 이소화가 여종을 시켜 자신이 수놓은 족자를 정경패의 집에 팔러 가게 하고, 그 자수가 범상치 않다고 느낀 정경패는 여종을 통해 족자의 주인을 초대한다. 이들은 처음 만나자마자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제약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하고 어진 친구를 사귀기도 어려운 현실에 서로 공감하면서 친밀감을 쌓아간다. 이소화는 “경패에게 경복했을 뿐 아니라 정 또한 도타워졌”고, 결국 “경패와 서로 좋아하게 되자 형제의 의를 맺어 한 집에 살며 한사람을 섬기기로 약속했다.”(173) 난양공주는 이미 진채봉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 정경패와도 평생 함께하기를 기약한 것이다.

그리고 이소화가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올린 결과, 마침내 양소유와 정경패의 혼인을 완강하게 반대하던 태후의 뜻을 돌린다. 태후는 정경패가 난양공주와 함께 양소유의 아내가 되는 것을 허락하는데, 그러기 위해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흥미롭다. 정경패에게서 요절한 난양의 언니를 떠올린 태후는 “정소저와 더불어 형제 되기를 원”(176)했던 난양공주의 소원을 들어준다. 정경패를 양녀로 삼아 이소화와 같은 지위의 공주로 만들면 두 명이 모두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들은 양소유와의 결혼을 계기로 공식적인 ‘의자매’가 된다. 여성들 간의 우정, 곧 자매애가 가부장제의 내부에서 실현된 것이다.

이들의 자매애는 또한 다른 여성들에게로 확장된다. 이소화는 정경패를 통해 가춘운과 우정을 맺고, 정경패 역시 이소화를 매개로 하여 태후와 친밀한 관계

---

3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필사본을 대본으로 한 책에는 “공주가 가로되”라고 담당하게 서술되어 있는 반면(김만중, 김병국 역, 앞의 책, 140쪽), 을사본에는 “난양이 보고 나서 슬피 말했다.”(160)와 같이 정경패를 향한 연민의 감정이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를 형성한다. 또 정경패와 가춘운은 이소화를 통해 진채봉을 만나 우정을 쌓는다. 이때, 이 궁중 여성들이 우정을 나누는 과정에서 함께 시를 지으며 논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두 공주와 양소유의 혼인이 정해지자 태후는 이 뜻을 담은 칠언절구를 한 수씩 지을 것을 명한다. 이에 공주들은 “비바람이 몰아치듯 붓을 놀려 순식간에 시를 완성”(177)했는데, 이들의 시를 보고 태후는 “내 두 딸은 여자 가운데 이백이요 조식이로다. 조정에서 여자 진사를 뽑는다면 마땅히 장원과 탐화를 나누어 하리로다.”(178)라며 탄복하였다. 진채봉과 가춘운 역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네 명은 계섬월과 적경홍을 만난 후,<sup>37</sup> 심요연과 백능과까지 만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때 심요연과 백능과는 공통적으로 양소유가 토변을 정벌할 때 만난다는 점에서 함께 짝으로 묶이지만, 이 둘은 정경패와 가춘운, 계섬월과 적경홍, 이소화와 진채봉 등과 달리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누는 관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머지 여성들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면서 일대일 관계 이상의 우정을 발전시킨다. 즉 다른 여섯 명은 각각 다른 친구 한 명과 형성했던 우정을 점차 복수의 쌍으로 넓혀 나간다면, 심요연과 백능과는 일대일의 우정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복합적인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이다.<sup>38</sup>

이처럼 『구운몽』에는 서사가 진행되면서 여성들의 우정 관계가 점차 넓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두 부인과 여섯 남자가 자주 모여 즐거움을 나누었다. 물고기가 강에서 헤엄치듯, 새가 구름 속을 날 듯, 서로 따르고 의지하니, 의좋은 형제들이 화음을 맞추어 악기를 연주하는 듯했다”(252)<sup>39</sup>는 서술에서 드러나듯이 여덟 여성은 화목한 관계를 형성하고, 마침내 의자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간다.

37 계섬월과 진채봉은 이미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이전에 진어사가 이곳의 관리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진남자와 정이 깊었습니다.”(54)), 양소유와의 결혼을 계기로 재회하여 그 우정을 더욱 심화하게 된다.

38 김혜정, 앞의 글, 70-71쪽.

39 이 부분에 대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은 “두 부인과 육 남자가 서로 친해함이 수족 같고”(김만중, 김병국 역, 앞의 책, 228쪽)와 같이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을 따름이다.

하루는 두 공주가 상의했다.

“옛날에는 자매 여럿이 한사람과 결혼해서 어떤 이는 처가 되고 어떤 이는 첩이 되기도 했다는데, 지금 우리 이처육첩은 혈육보다 의가 좋고 자매처럼 정이 깊지요. 우리 가운데는 외국에서 온 사람까지 있으니 이렇게 만난 것이 어찌 천명이 아니겠어요. 몸이 다르고 타고난 성이 다르며 지위 또한 나란하지 않지만 그것에 구애될 것 없으니, 의형제를 맺어서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어요.

이 뜻을 여섯 남자에게 말하니, 여섯 남자가 모두 극력 사양했다. 그중에 춘운, 경홍, 섬월은 더 완강했다. 경패가 말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임금과 신하 사이였지만 끝내 형제의 의리를 버리지 않았지요. 나와 춘운 남자는 본래 집안에서 이미 관포지교를 맺었으니, 한 사람이 형이 되고 다른 사람이 아우가 되는 것이 어찌 안 될 일이겠소. (…)”

두 공주가 마침내 여섯 남자와 더불어 집안에 모신 관음와상 앞에 나아가 분향하고 참배하며 의형제를 맺는 글을 지어 고했다. (253)

이처럼 『구운몽』의 여성 인물들은 일부다처제를 활용하여 기존의 우정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물론 이 소설에서 여성들의 우정은 남성을 경유해야만, 즉 일부다처제라는 타협과 가부장제의 승인을 통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여성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일부다처의 긍정일 따름”<sup>40</sup>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운몽』에는 잠재되어 있는 여성 공동체의 가능성 역시 함께 발견된다. 여승이 기존 체계의 외부 혹은 주변부에 존재하는 대안적인 공동체를 형성했다면, 가부장제 사회의 내부에서 조선 여성들이 꿈꿀 수 있는 우정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구운몽』의 허구적인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

40 정길수, 앞의 책, 105쪽.

#### 4 여성 공동체의 헤테로토피아적 가능성

『구운몽』의 여성 우정은 이처럼 일대일의 관계에서 점차 일대다의 관계로 확장되어 간다. 이때 이들이 형성한 공동체는 헤테로토피아적인 가능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헤테로토피아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여러 공간을 실제의 한 장소에 겹쳐놓는 데 그 원리가 있다.<sup>41</sup> 이 소설은 중세 시대에 양립될 수 없었던 결혼과 여성 우정, 곧 이성애와 자매애가 점차 겹쳐지는 서사로 이루어진다. 즉 『구운몽』의 여성 인물들은 가부장제를 따르는 한편, 그 내부에 일종의 헤테로토피아를 형성함으로써 여성 우정을 실현시킨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우정을 바탕으로 한 여성 공동체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sup>42</sup>

물론 『구운몽』에 내재된 남성 중심적인 한계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 소설이 당대 독자들에게 어떻게 읽혔는가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병설은 현대의 여성 독자로서는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운몽』이 조선의 여성 독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 당대 여성들이 살았던 현실이 소설 속의 이야기보다 훨씬 혹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sup>43</sup> 남성 독자들은 양소유가 여러 미인을 취하고 입신양명을 하는 데에서 욕망의 충족을 느꼈을 수 있으나, 여성 독자들의 경우 자유롭게 글을 읽고 쓰며 여성 친구들과 우정을 쌓는 이야기를 통해 대리 만족을 얻었을 가능성이 존

41 미셸 푸코, 앞의 책, 18-19쪽.

42 이와 관련하여 김문희는 『구운몽』에 지배 담론과 대항 담론이 중층적으로 드러나는 원인 중 하나로 김만중과 어머니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어머니에게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형성된 여성적 자의식 혹은 양성성이 작품에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김문희, 앞의 글, 261-262쪽), 이러한 주장은 셰익스피어의 사례를 통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그의 희곡에는 남성의 잘못된 생각이나 폭력을 물리치는 여성 친구들이 다수 등장할 뿐만 아니라, 플롯 자체가 두 여성이 서로 협력하여 행복한 결말을 이끌어내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형상화된 이와 같은 여성 우정의 바탕에는 일곱 자매 중 막내인 어머니를 통해 여성들 간의 유대가 풍기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흡수했던 경험이 자리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매릴린 엘름·테리사 도너번 브라운, 앞의 책, 101-103쪽).

43 김이준수, 「당신은 구운몽을 제대로 읽었고 알고 있나?: 『구운몽도』 정병설, 『채널에스』, 2013.07.18. <http://ch.yes24.com/Article/View/22619>

재하는 것이다.

이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제시된 바 없다. 그러나 『구운몽』의 이본 연구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구운몽』 을사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문본이지만, 김만중의 원작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후대의 개작본이라는 것이 학계의 논쟁을 거쳐 도달한 합의점이다.<sup>44</sup> 그렇다면 소설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점차 여성 간의 친밀한 관계에 주목한 결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을사본에 여성 우정의 양상이 섬세하게 구체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최근에 발견된 자료인 『팔선루집』은 여덟 명의 기생이 한양의 팔선루에서 수계를 하고 시회를 열며 ‘팔선회(八仙會)’라 칭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다가, 각각 고향으로 흩어진 후에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시를 지어 부치고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담고 있다.<sup>45</sup> 이 모임이 『구운몽』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아직 확실히 증명하기 어렵다. 다만 팔선회라는 명칭, 여성 간의 우정, 그리고 자유로운 작시 활동 등이 『구운몽』의 여성 인물들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그 영향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구운몽』은 일차적으로 그 자체가 ‘꿈’ 이야기라는 점에서 일종의 ‘유토피아’를 그린다. 이때의 유토피아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입신양명을 하고 여러 명의 미인을 얻은 양소유와, 조선의 여성과는 다르게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자유롭게 시작(詩作) 능력을 뽐내는 여성 인물들의 삶은 이상적인 동시에 비현실적이다. 유토피아는 어원 그대로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꿈에서 깨어나 성진과 팔선녀로 돌아온다. 한편, 당대 독자들에게도 이들과 아홉 명의 꿈같은 이야기는 소설 속에서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와 같다.

그러나 이 소설은 여성들이 기존의 남성 중심적 제도를 이용하여 우정을 바탕으로 한 ‘헤테로토피아’, 혹은 더 나아가 ‘페미니토피아’를 구성해 나가는 이야기로 읽힐 수도 있다. 푸코에 따르면 어떤 것이 ‘해방’의 층위에 속하고 또 어떤

44 정길수, 「『구운몽』 原典 연구사」, 『인문학연구』 제55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164-165쪽.

45 박영민, 「팔선회(八仙會)의 수계(修契)와 팔선루집(八仙樓集)의 편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8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9, 155쪽.

것이 ‘억압’의 층위에 속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주어진 체계가 아무리 억압적 이더라도 언제나 저항, 불복종, 대항 세력화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자유는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46</sup> 이렇게 볼 때 『구운몽』에서 일부다처제는 단지 여성을 억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우정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함으로써 해방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이 단순히 기존의 질서에 순응했다기보다는, 가부장제의 내부에서 여성 친구들과의 우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설 자체에 일정한 한계가 노정되더라도 당대 여성 독자들의 독서 과정에서 해방의 상상력이 작동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푸코는 공간의 해방성과 관련하여 건축가의 의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의 실천이라고 강조한다.<sup>47</sup> 이러한 논의를 소설 읽기에 적용한다면, 작가의 의도보다 실천으로서의 독서행위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령 작가의 의도가 억압적 일지라도 독자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해방의 징후를 포착하고 생성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대의 독자들에게 『구운몽』의 서사는 헤테로토피아, 곧 얼마간의 현실성을 지닌 유토피아로 의미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여성 인물들의 우정은 여성 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양산하고 재생산하는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제 질서를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독자로 하여금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재귀 효과’<sup>48</sup>를 낳았을 것이다.

## 5 결론

이 글은 여성 우정의 관점에서 『구운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중세 여성들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 오지 못한다.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규정되었고, 그 때문에 여성 친구들의 존재는 비가시화된 경향이 짙다. 이때 여성들끼리 함께 살아가

46 미셸 푸코, 앞의 책, 72쪽.

47 위의 책, 74-76쪽.

48 위의 책, 47-48쪽.

며 우정을 나누었던 여성 공동체는 가부장제 질서의 대안적이며 대항적인 공간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한다면 여덟 명의 뛰어난 여성이 양소유의 아내가 되는 『구운몽』의 서사는, 오히려 여성 인물들이 일부다처제를 이용하여 친구와의 우정을 실현하고 헤테로토피아적인 여성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이야기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물론 여성의 우정을 강조한다고 해서 모든 여성들이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거나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는 당연히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성 간의 갈등은 남성 간의 갈등에 비해 폄하되고 사소화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은 다른 여성과의 관계보다 남성과의 관계를 중시하도록 내면화되기도 쉽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우정과 그 의미에 주목함으로써 남성 중심의 시선으로 읽혀왔던 소설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는 의의를 지닌다.

## 참고 문헌

### 기본자료

김만중, 김병국 역, 『(현대역) 구운몽』,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140, 150, 228쪽.

김만중, 정병설 역, 『구운몽』, 문학동네, 2013, 6, 49, 53-56, 71, 78, 80, 100, 112-114, 125, 134, 157-158, 160, 164, 169, 173, 176-178, 181, 252-253쪽.

### 단행본

김병국,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322-325쪽.

이향순, 『비구니와 한국 문학』, 예문서원, 2008, 22쪽.

정길수, 『구운몽 다시 읽기』, 돌베개, 2010, 76-77, 105쪽.

홍나래·박성지·정경민, 『악녀의 재구성: 한국 고전서사 속 여성 욕망 읽기』, 들녘, 2017, 146-147쪽.

메릴린 엘롭·테리사 도너번 브라운, 정지인 역, 『여성의 우정에 관하여: 자매에

에서 동성애까지 그 친밀한 관계의 역사』, 책과함께, 2016, 15, 66, 73, 101-103, 109-111쪽.

미셸 푸코,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13-14, 18-19, 47-48, 72, 74-76쪽.

Woshinsky, B., *Imagining Women's Conventual Spaces in France, 1600-1800*, Farnham & Burlington, VT: Ashgate Publishing, 2010, p.3.

## 논문

김문희, 「〈구운몽〉의 중층적 담론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231-266쪽.

김재현, 「“Mulieres vulgariter dictae beguinae”: 메히트힐트(Mechthild of Magdeburg)를 중심으로 한 베긴회(Beguines) 연구」, 『중세르네상스영문학』 제12권 1호, 한국중세근세영문학학회, 2004, 43-65쪽.

김혜정, 「서사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우정 실현 양상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제22집, 동양고전학회, 2005, 61-102쪽.

박영민, 「팔선회(八仙會)의 수계(修袂)와 팔선루집(八仙樓集)의 편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8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9, 133-163쪽.

백두현, 「조선 시대 여성의 문자 생활 연구: 조선왕조실록 및 한글 필사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제97호, 진단학회, 2004, 139-187쪽.

이지하, 「조선후기 여성의 어문생활과 고전소설」, 『고소설연구』 제2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303-331쪽.

정길수, 「『구운몽』 原典 연구사」, 『인문학연구』 제55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163-190쪽.

정병언, 「저항적 여성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 마샤 노먼의 *Getting Out*」, 『현대영미드라마』 제20권 3호,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 2007, 133-152쪽.

정지영, 「조선시대 혼인장려책과 독신여성: 유교적 가부장제와 주변적 여성의 흔적」, 『한국여성학』 제20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04, 5-37쪽.

McArthur, T. M., “Through the Grate; Or, English Convents and the Trans-

mission and Preservation of Female Catholic Recusant History”, ed.,  
Jeana DelRosso, Leigh Eicke and Ana Kothe, *The Catholic Church and  
Unruly Women Writers: Critical Essays*, New York &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07, pp.105-122.

#### 기타 자료

김이준수, 「당신은 구운몽을 제대로 읽었고 알고 있나?: 『구운몽도』 정병설」,  
『채널예스』, 2013.07.18. <http://ch.yes24.com/Article/View/22619>

“Politics and Friendship: A Discussion with Jacques Derrida” (discourse at  
the Centre for Modern French Thought, University of Sussex, UK, De-  
cember 1, 1997). [www.livingphilosophy.org/Derrida-politics-friendship.  
htm](http://www.livingphilosophy.org/Derrida-politics-friendship.htm)

#### Abstract

A Study on Female Friendship in *Guummong*

Eom Jinju

This study clarifies the aspect and meaning of female friendship embodied in Kim Man-jung's *Guummong*. Even though there are several female characters in *Guummong*, relatively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relationship among them. If we focus on the intimate relationships of women,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Guummong* in which Yang So-yu marries several outstanding women, can be read anew. The female friendship depicted in *Guummong* is divided into two aspects: choosing to marry the same man for a one-to-one friendship, and forming a female community by expanding such friendships to a one-to-many relationship through marriage. In the Middle Ages, the female community, such as nuns, functioned as an alternative space or counter space to a patriarchal society. Keeping this in mind, polygamy in *Guummong* can also be interpreted as a heterotopia for women's friendship, not just as a male-centered order. Of course,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male desires are embedded in *Guummong*. However, if the text is read from a female friendship perspective, its emancipatory meaning can be discovered.

Key words: *Guummong*, Female Friendship, Sisterhood, Female Community, Heterotopia



본 논문은 2021년 3월 26일에 접수되어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4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